

[산업] 청정수소 만들고 터빈 개발 두산重, 수소사업 확대



Life

[라이프] "갑질 그만" 가맹사업법 실효성 촉각



환기하면 감염위험 뚝… 서울시 "1시간마다 창문 열어요"

범시민 환기 실천 캠페인 나서 30%, 환기 불충분 시설서 감염 1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 권고

서울시가 코로나19확산세를 꺾기 위 해 1시간마다 10분이상 창문을 개방해 공기 순환을 유도하는 내용의 범시민 환기 캠페인을 벌인다.

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 역통제관은 3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온 라인 브리핑에서 "최근 4개월 동안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30%가 환기가 불 충분한 시설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 타났다"며 "이에 시는 '서울형 환기 생 활수칙' 권고안을 마련해 코로나 집담 감염의 최대 위험 공간인 밀폐 시설 내 에서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한 다"고 밝혔다.

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서울시 코로나19 집단감 염 관련 확진자 2935명 가운데 900명



3일 서울 송파구 서울체육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코로나19 이동식 PCR 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 체 키트를 정리하고 있다.

(30.7%)이 실내체육시설, 콜센터처럼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공간에서 나왔으며, 이중 4월 발생이 38.7% (349명)에 달했다.

시는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 계와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3주간 연장하고 환기 실천 캠페인에 나서기로

서울형환기 생활수칙에서 시는 ▲소 음과 같은 특별한 민원 요소가 없는 시 설은 창문과 출입문 상시 개방 ▲출입 문 개방이 어려운 곳은 1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 ▲창문이 없는 지하나 창문 개방이 어려운 시설은 통로와 연결된 출입문을 열고 환풍기 가동 ▲냉·난방 기 가동시 창문 일부 개방 ▲비말 발생

이 많은 실내 체육시설은 영업 전•후 15 분 이상 창문 전부 개방 ▲가정내 환기 생활화 등을 권고했다.

박유미 방역통제관은 "서울의 창을 열자' 캠페인은 환기를 통해 코로나 바 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 을 입증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마련됐다"며 "1시간마다 10분 이상 창 문을 열어두면 실내 공기 오염도를 10 분의 1로 줄일 수 있다"고 설명했다.

올해 미국 MIT에서 실시한 시뮬레 이션 결과에 의하면 잦은 환기시 코로 나 바이러스 전파 확률이 10% 미만으 로 감소했고,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20년 냉난방기 가동 중 창문을 개방 하면 확진자 비말 고농도 영역이 절반 가량(40→20%) 줄어든다는 내용의 연 구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고 시는 덧

시는 서울형 환기 수칙을 담은 포스 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시민사회단체, 관련 협회들과 합동 캠페인을 진행해

시민 실천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.

박 방역통제관은 "생활 속에서 누구 나 실천 가능한 환기만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있 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 란다"고 당부했다.

배상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 구원은 "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은 확 진자 비말 농도가 얼마나 높은지, 노출 시간이 얼마나 긴지에 영향을 받는다" 며 "코로나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시로, 길 게 환기하는 것"이라고 강조했다.

권오복 한국외식업 중앙회 상임부회 장은 "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최소한 내 업장에서 코로나 19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"며 "'서울의 창을 열 자' 환기 캠페인에 업주분들의 적극적 인 동참을 부탁드린다"고 말했다.

/김현정 기자 hjk1@metroseoul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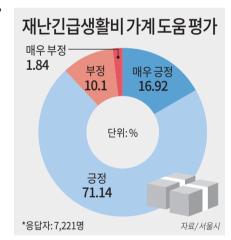
서울 재난긴급생활비, 소비 12% 늘렸다

긴급생활비 대상자 88% "도움 됐다" 저소득층 소비증진… 19.8% 늘어

서울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게 지급한 재난긴급생활비가 수혜가구의 소비를 12% 넘게 증진시 키는 경제적 효과를 발휘했다고 3일 밝 혔다.

시는 작년 4~5월 저소득층에 생활안 정자금을 보조하고자 '서울시 재난긴급 생활비' 명목으로 160만가구에 5400억 원을 지급했다.

서울시복지재단이 재난긴급생활비 를 받은 시민 7221명을 대상으로 지난



해 10~11월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의 88.1%가 '가계에 도움이 됐다'고 답 한 것으로 나타났다. '지역경제 활성화 에 기여했다'는 답변 비율은 86.8%나

재단은 "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이 이 뤄지던 시기에 수혜가구의 소비 증진 효과는 11.7%였다"면서 "특히 월소득 200만원 미만인 시민의 경우 소비가 19.8% 늘어 저소득층일수록 소비진작 효과가 컸다"고 설명했다.

재난긴급생활비수혜자 중소득이월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48.6%였고, 기 준중위소득 30% 이하가 46.7%에 달해 절반이상이 소득빈곤상태였다고시는 덧붙였다. /김현정 기자

향후 10년 청사진 '서울비전 2030' 수립

서울시 핵심과제 도출 목표

서울시는 향후 10년 도시의 미래 청 사진을 만들고자 '서울비전 2030 위원 회'(이하 위원회)를 구성해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.

위원회는 '다시 뛰는서울'을위한비 전과 초일류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10년 간 서울시가 추진할 핵심 과제 도출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.

위원회는 ▲비전 전략(7명) ▲글로벌 도시경쟁력(5명) ▲안전・안심 도시 (6명) ▲도시공간 혁신(5명) ▲스마트

도시(5명) ▲공정・상생 도시(5명)로 구 성된 6개 분야별 분과와 ▲2030(3명) ▲ 50+시니어(3명)로 이뤄진 2개 특별 분 과로 나뉘어 운영된다.

위원회는 이날 발대식을 갖고 서울 비전 2030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 에 나선다. 이들은 앞으로 약 2개월 동 안 분과별 심층논의와 총 세 차례 전체 회의를 거쳐 종합적인 '서울비전 2030'을 완성하게 된다. 서울시는 7월 중 '서울비전 2030'을 시민들에게 발표 할 계획이다.

/김현정 기자

파주시, AI분석 '스마트 교통체계' 구축

교차로 서비스 수준 방향별 분석

파주시는 지난 4월 30일 '지능형교통 체계(ITS) 확충사업' 완료보고회를 개 최했다. 이번 보고회는 코로나19 특별 방역관리 기간임을 고려해 최종환 파주 시장을 비롯한 자문위원과 관계자가 비 대면으로 진행했다.

2020 ITS 확충사업은 2020년 6월부

터 올해 3월까지 국토교통부 지능형교 통체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39억 원과 시비 26억원, 총사업비 65억원으 로 추진됐다.

▲교통신호제어기 온라인통신 (733대) ▲긴급차량우선신호(4개구간) ▲스마트보행약자횡단지원(4개소) ▲ 교통정보수집(22개소) ▲돌발감시CCT V(20개소) ▲스마트교차로(28개소) ▲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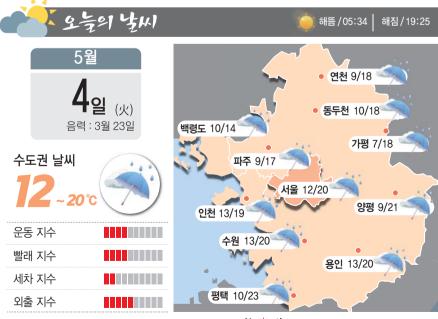
/사진 뉴시스

교통정보전광판(8개소) 등의 시스템을 구축했다.

현재, 실시간으로 수집한 다양한 교 통정보를 파주시교통정보센터 홈페이 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.

특히, 이번에 구축된 스마트교차로 AI분석시스템을 통해 전국 최초로, 교 차로의 서비스 수준을 방향별로 실시간 분석한다. 이를 바탕으로 교통서비스 수준이 낮은 방향은 신호주기 조정 등 을 통해 즉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

/경기=안성기 기자 ask9990@



·자료제공 : Kweather.co.kr

▲머스크의 두번째 유인우주선, 53년만 에 야간바다 귀환

- ▲ 전 세계 사망 3위 멕시코, 인도발 변 이 첫 발견
- ▲日코로나 담당상 "긴급사태 해제 판 단 아직 이르다"
- ▲ WHO "하루동안 전세계서 약 81만명 신규 감염…절반 이상이 인도"



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

▲미얀마 쿠데타 만 3개월 '봄 혁명의

날'시위…8명사망

▲ 옐런 "바이든 4조달러 지출안 역사적 투자…인플레 우려없어" /사진 뉴시스